

오전11시	인도 : 최세열목사
◆경배와 찬양의 예배◆	
※ 입례송 621장(찬양하라 내 영혼아)
※ 예배부름 인도자
※ 예배기원 인도자
※ 경배찬송 15장(하나님의 크신사랑)
※ 교독문 2(시편2편)
※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송 528장(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배기도 1부 안복선집사 2부 이영선집사
응답송 찬양대
이달의찬양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협력기도 / 한마음기도 / 중보기도 다같이
*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 여신도회를 축복하사 주신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 하나님의 새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 듣는 예배◆	
성경봉독 고린도전서4:1-5
찬양 임마누엘찬양대
말씀선포 “ 직분자의 사명과 금지 ”
기도 설교자
◆응답하는 예배◆	
찬송 314장(내 구주 예수를 더욱사랑)
봉헌 (여신도회)
동행기도 담임목사
여신도회사업보고 동영상
친교와소식 말은이
※ 찬송 여신도회회가
※ 축도 담임목사
※ 축복송 찬양대
※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예배 후에 다섯분 이상, 15분이상 서로 친교 하십시오.”	

찬양예배 / 오후2시		수요일예배 오후7:30분		시백기도회(월-금)	
인도 / 담임목사	인도 / 최세열목사	인도 / 최세열목사	새벽 5:00	인도 : 담임목사	창세기강해
찬양 / 다함께	찬양 / 다함께	기도 / 한마음기도	금요기도회	대심방이 끝날때까지 쉽니다.	
기도 / 정정희권사	기도 / 한마음기도	본문 / 막 2:18-22			
본문 / 창세기 12:1-4	본문 / 막 2:18-22	말씀 / 최세열목사			
말씀 / 최세열목사	말씀 / 최세열목사	“생배와			
축도 / 최세열목사	축도 / 최세열목사	포도주의 비유”			
		주기도문 / 다같이			
예배위원	안내위원	류종란 함경숙 김혜경 김영란	다음주 기도	1부	이광주목사
	현금위원	김기수 노대성 김운수	다음주 성경봉독	2부	강항구장로
	1월	이종봉 윤승호 김혜경 김봉순	다음주	1부	말은이
	2월	정정희 천사라 김병국 임병호	성경봉독	2부	김기희권사
	식당봉사	금주 에스더A	다음주 에스더B	다음주 찬양예배기도	이춘호권사
헌신찬양	금주	여신도회	다음주	중보기도사역팀	

직분자의 사명과 금지 / 고린도전서 4:1-5

오늘 여신도회 주일을 맞이하여 여신도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고 더욱 아름다운 섬김과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의 직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직분자의 금지는 무엇입니까?

1.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금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자신의 금지와 자랑으로 삼았습니다(고전10:31, 롬14:8) 본문에서 말하는 일꾼은 ‘아래에서 노 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배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은 ‘왜 젓는 것인지,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배의 키를 잡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모두 선장의 명령에 따라 자기 일을 하는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일꾼들이 누구를 위해 일하느냐에 따라 금지를 지니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노를 젓는 것이니 금지를 지녀도 되는 것입니다.

직분자의 금지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분이 소중하고,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소중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일하는 우리에게 금지가 있는 것입니다.

2. 비밀을 맡은 자로서 금지를 지녀야 합니다.

비밀을 맡았다는 말은 ‘관리자, 집사, 청지기’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비밀을 맡았다는 말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맡았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맡기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는 뜻이고,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맡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비밀은 아무에게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복음을 맡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의 비밀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라는 금지를 지녀야 합니다.

3.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충성이란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본문에서 충성하는 자가 지녀야 할 중요한 원칙을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평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헌신자들을 낙심시키는 다른 이들의 비난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도 조심해야 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맡겨지든지 간에 그저 최선을 다할 뿐 그 다음은 하나님의 평가에 맡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듯이(갈1:10)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충성을 다하는 직분자들과 여신도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주제로 나누는 구역예배(주제1:하나님)
제3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1-45절)

말씀 살피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시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원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고,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묵상

한 사람을 여러 번 만나다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의 됨됨이. 곧 성품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만들어진 성품이 말과 행동에서 은연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는 사람의 성품을 닮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평생의 만남을 이어갈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성품으로 다가오실까요? 하나님과 자주 만나게 되면 우리도 그분을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거룩하신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사 6-3)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거룩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쉬 (kadosh) 인데 '잘라냄', '분리함', '구별됨'의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구별되는 분을 말합니다. 특히 죄로부터 분리되어 거룩하고 성결하게 구별되는 분이십니다. 빛과 어두움이 함께 있을 수 없듯이 이 하나님과 죄는 결코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둘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45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땅에 기는 길짐승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44절) 내가 사는 것이 아무리 다급하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양심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살전 5:22)고 합니다. 하나님과 죄가 함께 있을 수 없듯이 우리 마음에 결코 두 주인을 모실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죄악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 데타노이어는 가던 방향을 멈추어 본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셋째,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자신의 것을 나누고 희생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별된 삶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높이고자 할 때 스스로 낮추어 남을 섬기려는 삶. 그것이 구별된 삶입니다. 백 마디 말보다 힘 있는 것이 진실된 행실입니다. 우리의 구별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드러날 것입니다.

말씀적용

-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 내가 있는 모든 곳(집, 교회, 직장, 학교 등)에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고자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봅시다

●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나 오늘 등록하신 분,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오늘은 총회가 제정한 여신도회 주일입니다. 여신도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2. 신년축복심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주 심방은 19일(화) : 4구역, 21(목):6구역, 22일(금):8구역입니다.
3. 성지순례단 모임이 찬양예배 후에 전도실에서 있습니다.
4. 청소년부 동계수련회가 1월 18일(월)부터 20일까지(수) 수지수양관(수지구 고기동)있습니다. 자녀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 교우소식 : 이완수집사님이 허리디스크 수술을 하시고 일스병원511호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향기로운 예들과 봉사

- 십 일 조 : 김선주 원혜경 이광주 홍혜미 오복실 홍강의 김성희 박지영 함경숙 서영자 이현옥 지국남 나금옥 조종순 김홍영 박홍만 정정희
- 감사헌금 : 양희임 김지환가정 김동현 가정 심문자 이종춘 허 울 김순남 무명 (일천번제) 김동현 한재현 한진현 (생일)무명 (심방) 양석임 서순자 최승만 심복례 김홍영 공영순 박상귀
- 비전씨앗 : 황은상 김울건 배영인 김하운 안재빈
- 신년감사 : 김운수 이용훈 김영숙 이은구 김춘자 노대성 정재영 무명

구역 예배를 통한 복음전파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인인원	헌금	성경	모일곳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인인원	헌금	성경	모일곳
1	박홍만	공영순	11	17,000			7	강은순	이영선	김성희			
2	정정희	신혜영	7	24,000	57	이현옥	8	김순남	오복실	정숙자	5	20,000	50 오복실
3	이준호	함경숙	4	20,000	100	박경자	9	김인순	이영란	박치국	3	15,000	100 박기환
4	김기희	김경희	5	16,000	20	대심방	10	장영분	노순영	김영란	3	15,000	80
5	이문순	원혜경	4	15,000	30	이문순	계				46	182,000	512
6	류종란	김애자	4	40,000	75								

예배시간안내

구분	요일	시간	장소	구분	요일	시간	장소
주일예배	주일	오전9시,11시	본당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8시	소예배실
찬양예배	주일	오후 2시	본당	어린이예배	주일	오전11시	종합교육실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소예배실	청소년예배	주일	오전11시	소예배실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시	소예배실	청년부	주일	오후 2:30	전도실

여신도회가

신애균 작사
(E.O.Excell)
곡 : 찬송가 183장

1. 첫 새 벽별 - 빛 - 빛 나 네 벗 들 아모 여 라 - 진
2. 배 달 혼지 - 님 - 이 몸 에 새 생 명받 아 서 - 삼
3. 새 벽 별이 - 온 - 누리 에 고 요 히비 치 네 - 진

리 의 깃 - 밤 - 날 린 다 몽 처 서 나 가 세 주 의
천 리 방 - 방 - 곡 곡 에 가 리 라 이 몸 이
리 의 깃 - 밤 - 들 고 서 어 딴 들 못 가 리

부 - 림 받은 이 예 - 대답 하고서 그를 따라 가겠네 진 -

리 - 와 생명의 복음 전 파 하러 가 겠 네

원천교회비전선언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한 몸이 되고, 한 몸 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따라 교회에서 헌신하고, 세상에서 선교 한다”

2016-3호

2016.1.17.

주현절 둘째 주일, 여신도회주일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예비하신 주님,
이 경배와 찬양의 시간을 허락하셨으니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 바칩니다.

온 생명을 창조하실 때, 여자와 남자로 지으시고,
둘이 하나가 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나와 한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주님의 뜻으로 깨우쳐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를 지으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자를 지으신 주님,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여 연합하게 하시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부르신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며 세상에 나가
차별받고 소외된 이웃을 섬기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게 하소서.

춥고 메마른 겨울의 계절에도
생명의 씨앗을 지켜주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당목사 : 최세일(imcsr@hanmail.net)

시무장로 : 박홍만 강광구

교육담당:이광주목사, 강은순전도사 지휘:김영란 반주:안진영 최지현